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Ⅱ 제6차 예비평가 정답 및 해설

※ 이감에서 제공하는 학습 서비스를 받아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서 '이감TV'를 검색하세요.

• 국어 영역 •

정답

1	④	2	②	3	②	4	④	5	①
6	③	7	②	8	⑤	9	③	10	⑤
11	⑤	12	①	13	①	14	②	15	④
16	④	17	④	18	③	19	③	20	⑤
21	①	22	④	23	②	24	④	25	①
26	②	27	⑤	28	③	29	⑤	30	①
31	③	32	①	33	⑤	34	④	35	②
36	④	37	⑤	38	③	39	⑤	40	①
41	④	42	②	43	⑤	44	①	45	③

해설

[1~3] (화법) 연계 지문 : 수능완성 215쪽

1. [출제의도] 토의에서 다루고 있는 방안들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 4’에 따르면 연극(㉠)은 꽤 많은 친구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를 학생들 전부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연극은 학생의 날이 기념하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자세하게 전달한다. ② ‘학생 5’에 따르면 플래시 몹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동작과 대형을 익혀야 한다. ‘학생 3’ 또한 플래시 몹의 동작을 짜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함을 내비치고 있다. ③ 연극과 플래시 몹 모두는 학생의 날 행사에서 진행할 공연 유형의 후보이다. ⑤ 연극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내용을 각색하여 전달하는 것이고, 플래시 몹은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약속된 행동인 동작이나 구호 등을 함께하는 것이다.

2. [출제의도] 토의의 특정 부분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학생 5’는 대부분의 학생이 수동적으로 관람하게 된다는 연극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플래시 몹은 모두가 공연의 참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지니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다.

[오답풀이] ④, ⑤ [B]에서 ‘학생 4’는 다수가 공연에 참여할 수 있다는 플래시 몹의 장점을 인정한 후, 관객이 공연에 참여하도록 대본을 각색하면 연극도 많은 친구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연극의 단점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3. [출제의도] 토의의 흐름을 바탕으로 토의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C]에서 ‘학생 1’은 학생의 날 행사에서 진행할 공연이 연극으로 합의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관객들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아이디어를 준비해 오라고 하였다. 이에 학생들이 동의를 표시함으로써 첫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 결정되었다.

[4~7] (화법-작문) 연계 지문 : 수능완성 246쪽

4. [출제의도] 강연에 나타난 강연자의 강연 전략에 대해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강연자가 중심 화제와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강연자는 ‘오늘날 우리는 ~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이 즐겨 ~ 것들일까요?’

‘정말 멀리서 왔지요?’, ‘그렇다면 푸드 마일리지를 ~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② ‘푸드 마일리지란 ~ 곱해서 구합니다.’라고 하며 강연 주제와 관련한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포도, 오렌지, 쇠고기의 운송 거리, 국가별 1인당 평균 푸드 마일리지, 오렌지와 감귤 구입 시 탄소 배출량 등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여 청중이 강연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 순서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청중이 강연 내용을 정리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출제의도] 강연자의 매체 활용 계획이 강연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둘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강연자는 [요청 1]에 대한 내용 전달 과정에서 ㉠을 제시하고 있으나, 포도와 오렌지의 푸드 마일리지를 계산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지는 않다.

6. [출제의도] 글쓰기 과정에서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 글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강연자는 ‘로컬 푸드는 수송 거리가 짧기 때문에 먹거리를 더 신선한 상태로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나)에서 로컬 푸드 매장을 방문해서 먹거리의 수송 거리를 직접 확인해 보고 이를 실감하게 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강연자는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로컬 푸드를 이용할 것을 알려 주었고, (나)에서는 실제로 가족과 함께 로컬 푸드 매장을 방문한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② (가)에는 (나)의 학생이 좋아하는 키위, 연어, 아몬드 등의 수입 먹거리가 어디에서 이동해 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나)의 둘째 문단에서는 인터넷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해 보았음을 언급하고 있다. ④ (가)에서 강연자는 높은 푸드 마일리지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하며 그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나)에서 학생은 이를 가족들에게 전달하여 가족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⑤ (가)에서 강연자는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생산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는 우리의 식생활이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였고, (나)에서 학생은 이 질문이 평소 자신의 식생활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7. [출제의도] 글의 마지막 문단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히 작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②에서 ‘푸드 마일리지 줄이기에 동참한 후 환경 부담을 더는 데 기여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라고 하여 푸드 마일리지 줄이기에 동참한 후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였고, ‘앞으로도 푸드 마일리지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더욱 줄여 나가도록 해야겠다.’라고 하여 앞으로의 다짐을 나타내고 있다.

[8~10] (작문)

8. [출제의도] 글의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 계획이 글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40쪽)

(나)의 첫째 문단에 ‘많은 학생들이 시험 기간 때마다 ~ 고민이라고 답했다’라는 문장을 통해 시험공부를 미루는 습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상황을 언급하였다.

[오답풀이] ① 지연 행동의 이유를 여러 가지 제시하기는 했으나 각각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③ 시험공부를 언제 시작하는지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설문 조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④ 할 일을 미루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9. [출제의도] <보기>를 바탕으로 글에 제시된 내용을 적절히 비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는 외국어 공부, 운동 배우기 등과 같이 그 결과가 빠르게 드러나지 않는 일들의 경우, 먼 훗날만을 그리면서 진행하면 상상과 달리 더디게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여 포기하기 쉽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에 제시된 지연 행동을 개선하는 방법 중 마지막 방법인 ‘향후 목표를 달성했을 때를 상상해 보는 것’을 비판할 수 있다. 즉 어떤 일들은 향후 목표를 달성했을 때를 상상하면 그와 다른 현실에 실망하여 오히려 일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③이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친구들의 조언에 따라 초고를 적절히 고쳐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92쪽)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가 마지막에 추가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③ 초고의 세 번째 문장에 쓰인 ‘분배하다’에는 이미 ‘나누다’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중복된 어휘를 삭제하라는 조언에 따라 ‘나누어’라는 중복 어휘를 삭제하였다. ④ 초고의 네 번째 문장에 ‘10시간 공부해야 하는 날’이라는 새로운 정보가 갑자기 등장하고 있으니 생략된 정보를 담은 문장을 추가하라는 친구들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초고의 네 번째 문장의 앞에 생략된 정보에 대한 문장을 추가하였다.

[11~15] (언어)

11. [출제의도] 용언의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에 대하여 올바르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지문 : 수능완성 249쪽)

지문에 따르면 현대 국어에서 어간 끝소리가 ‘ㅅ’이며 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은 중세 국어 시기에 어간의 기본형이 끝소리로 ‘ㅅ’을 가졌다. 이때, 끝소리 ‘ㅅ’은 8중성 중의 하나였으므로 활용 시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③ 현대 국어 용언 ‘숫다’는 뒤에 모음 어미가 올 때 ‘숫아’처럼 규칙 활용을 하므로, 중세 국어에서도 그 어간이 ‘숫-’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용언과 체언의 형태 변화에 대하여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특강 215쪽)

‘시므다’는 모음 어미가 뒤에 오면 어간 끝음절 모음이 탈락하고 자음 ‘ㄱ’이 덧생기는 활용을 하였다. ‘너느’와 ‘구무’는 조사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끝음절 모음이 탈락하고 ‘ㄱ’이 덧생겼으며,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형태 변화 없이 그대로 쓰였다. ㉠은 ‘너느’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ㅅ’과 결합한 것이므로 ‘너느’이, ㉡은 ‘시므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와 결합한 것이므로 ‘시므-어’가, ㉢은 ‘구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와 결합한 것이므로 ‘굽기(굽+이)’가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조음 위치 동화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92쪽)

비표준 발음 양상을 보면, ‘신문[신문]’의 [신]은 [심]으로, ‘곶감[곶감]’의 [곶]은 [곡]으로, ‘숨고[숨꼬]’의 [숨]은 [송]으로 발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 자음의 조음 위치가 뒤 자음의 조음 위치와 같아지는 조음 위치 동화가 과도하게 적용된 것이다.

14. [출제의도] 조사와 어미의 쓰임을 올바르게 탐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92쪽)

‘그는 시인이며 출판사 사장이다.’에 쓰인 ‘-며’는 두 가지 이상의 사태가 동시에 겹쳐 있음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쓰이고 있는 연결 어미이므로 ‘-며’의 용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④ ‘-면서’의 뜻풀이와 ‘-며’의 뜻풀이를 비교해 보면, ‘-면서’의 용례에 쓰인 ‘-면서’를 ‘-며’로 바꾸면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겹쳐 있음’의 의미를 가지는 문

장으로 그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

15. [출제의도] 안긴문장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수능완성 58쪽)

㉞의 안긴문장('아이가 살던')과 ㉟의 안긴문장('엄마가 옷을 산')에는 모두 부사어('집에', '시장에서')가 생략되어 있다.

[오답풀이] ㉞의 안긴문장('동생이 고향에 온다는')에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으며, ㉟의 안긴문장('내가 들고 있던')에는 목적어('원반을')가 생략되어 있다.

[16~19] (교전소설) 작자 미상, '숙향전' (연계 지문: 수능특강 131쪽)

16.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용녀가 숙향을 구하러 온 것은 숙향의 아버지인 김전에게 입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이지, 숙향이 천상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대신 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용녀가 벌을 받은 것은 자신의 시녀가 저지른 잘못을 감추었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서인데, 그때도 시녀 대신 벌을 받았다고 자청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김전은 거북이 낚시고 간 구슬을 보고는 '일전에 반하수에서 구한 은혜로' 준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③ 선녀들은 향아의 명을 받아 숙향을 구하러 왔고, 용녀는 옥체로부터 숙향에 대해 들은 부왕의 말을 듣고 자원하여 숙향을 구하러 온 것이다.

17. [출제의도]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가지는 의미와 기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반하수'에서 김전은 거북의 특이한 모습에 주목하였고, '표진강'에서 숙향은 자신이 전생에 '월궁 소아'였음을 알게 된다.

18. [출제의도] 발화의 문맥적 의미와 서사적 기능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는 '노전에 화제를 만나고 낙양 옥중에 죽을 액을 지낸 후에 태을을 만'날 것이라며 숙향의 앞날에 예정된 사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B]에는 '앞에 또 두 횡액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로 숙향의 앞날에 예정된 위험이 언급되어 있다.

[오답풀이] ① 하늘의 뜻이니 너무 한스러워하지 말라며 상대를 위로한 것은 [B]이다. ② '상서의 은덕을 갚고자 하여 자원하여 왔'다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동기를 밝힌 것은 [A]이다. ⑤ '두 횡액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당부 말이 담겨 있는 것은 [B]이다.

19.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숙향은 '전생의 죄 중함으로 부모를 잃고 고생'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승상 집 약명은 무슨 일'이냐며 선녀에게 물었다. 즉 숙향은 '죄로 인간에 적강한 일'을 깨닫고 나서도 자신이 '악명을 쓰고' 쫓겨난 일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는 선녀가 '부인은 한치 마소서.'라고 답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④ 전생의 죄로 현재 고생을 한다는 숙향의 말에서는, 전생과 현생이 이어지며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동한다고 여기는 인물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⑤ 숙향을 포함한 사향이 옥황상제의 진노로 벼락을 맞아 죽었다는 선녀의 말에서는, 초월적인 힘으로 악행이 처벌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과응보의 원리가 엄중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5] (인문 융합) 연계 지문: 수능완성 252쪽

20. [출제의도] 두 지문의 공통적인 내용 전개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와 (나)는 모두 동물의 지위와 관련하여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데카르트의 상이한 입장을, (나)에서는 인간과 한원진의 상이한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동물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동서양의 관점 차이에 대한 분석은 (가)와 (나)를 전체적으로 볼 때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가)와 (나)의 공통적인 내용 전개 방식으로 다룬 것이 아니다. ② (가)에서는 여러 입장이 시대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나, (나)에서는 동시대에 벌어진 논쟁이 소개되고 있다. ③ 동물과 인간의 본성과 관련한 문제가 오늘날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④ (가)와 (나)에는 동물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대립되는 관점들을 절충하여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려는 시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21.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위계에서 생육은 식물, 동물, 인간 모두가 지닌 것이라고 보았다.

[오답풀이] ②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세계에 대한 참된 앎을 얻는 이론적 지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동물과 차이가 있다. ③ 데카르트는 물질과 영혼은 각각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실체이며, 물질은 연장을 본질로 갖는다고 보았다. ④ 데카르트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물질인 옥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실체이지만 인간의 감각 지각에 개입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표상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의식적인 감각 지각을 갖도록 해 준다. ⑤ 생물학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고 욕구를 지닌다는 점에서 인간과 동물 간의 본성 차이는 미미하다.

22.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의 두 진술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A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사슴의 행동을 설명한 것으로, 사슴이 실천적 지성을 갖고 있다는 이론에 근거한 설명이다. B는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사슴의 행동을 설명한 것으로, 사슴이 지성이 개입되지 않는 감각 지각만을 갖고 있다는 이론에 근거한 설명이다.

[정답풀이] B에서 사슴은 사자에 대한 생리적 감각 지각만을 갖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즉 사슴은 지성이 개입되지 않는 감각 지각만을 갖고 있어서 사자의 표상을 떠올릴 수 없다. 따라서 사자의 표상을 떠올리는 데에 지성이 개입되지 않는 감각 지각이 작용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A에서 언급된 사슴은 옥체에 영혼이 깃든 사슴이고 B에서 언급된 사슴은 영혼이 결여된 옥체인 자동 기계이다. ② A에서 언급된 사슴은 영혼의 한 종류인 감각 지각을 가지는 사슴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각적 능력을 통해 사자를 시각한 후'라고 서술하고 있다. ③ A에서 언급된 사슴은 영혼의 한 종류인 실천적 지성도 갖고 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최선의 수단으로 도망의 방법을 선택'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⑤ B에서 언급된 사슴은 기계적이고 반사적인 운동만을 할 수 있는, 즉 영혼이 결여된 자동 기계이다. 따라서 사슴의 행동은 모두 물질의 기계적인 운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반사적으로'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23. [출제의도] 두 개념을 토대로 지문의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인물성이론을 표방하는 한원진이 말하는 '성'은 인간이 말하는 기질지성과 사실상 같은 것이다. 기질지성은 '리'와 '기'가 합쳐져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인물성동론은 '성'이 곧 '리'와 같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① 낙론 계열뿐 아니라 호론 계열도 동물들이 천명을 부여받았다는 점은 인정한다. 천명은 본연지성으로서의 '리'를 말한다. 다만 호론 계열은 그것이 기질에 내재되면서 다른 특성을 띠게 되었다고 본다. ③ 인물성동론이 명칭 차이는 존재하지만 지시하는 실체는 같다고 본 것은 '성'과 '리'이다. 인물성동론과 인물성이론은 모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지시하는 실체가 같다고 보지 않는다. ④ 인물성동론의 경우 기질이 상이한 형태로 외화되는 것이 아니

라 기질에 의해 본성이 상이한 형태로 외화된다고 본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차이는 본연지성의 차이는 아니다. 인물성동론은 인간과 동물의 본연지성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⑤ 인물성이론은 동물의 '성'에는 애초부터 오상의 일부만 있다고 보았다.

24.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학생의 탐구 과제 수행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가)와 (나)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본성에 대한 동서양의 관점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을 강조하는지의 여부를 비교할 수 있고, 그 판단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지도 비교할 수 있다.

[정답풀이] 데카르트는 동물의 영혼이 인간과 다른 본성을 지닌다고 보지 않는다. 그는 옥체와 영혼이 모두 실제로 있는 인간과 달리 동물은 영혼이 없는 자동 기계와 같다고 본다. 데카르트는 동물에 영혼이 없다는 점으로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한원진은 동물에게는 오상의 일부만 있다는 이유로 인간과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오답풀이]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이 질료와 형상의 결합을 통해 비로소 존재한다고 본다. 즉 동물도 영혼과 분리되어 옥체만 존재할 수 없다. 인간도 인간이나 동물은 모두 '리'와 '기'가 합쳐져 개체를 이룬다고 본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의 원리인 여러 유형의 영혼 중 동물이 일부만 가진다고 본다. 한원진 역시 동물이 오행의 성질인 오상 중 일부분을 구비한다고 본다. ③ 데카르트는 영혼이 빠진 '인간의 신체' 역시 기계라 본다. '인간의 신체'는 동물과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인간은 기질에 의해 본성이 상이한 양태로 외화됨에 따라 성인과 범인, 인간과 동물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본다. ⑤ 생물학적 인간관은 물질적 측면에서 본성을 파악한다. 즉 인간과 동물의 본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물질적 측면을 고려한다. 반면 인간은 도덕적 본성을 담지하고 있는지, 그 양태는 어떠한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25. [출제의도] 지문의 단어와 문맥상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단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의 '이해'는 문맥상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함'이라는 의미이며, ①의 '이해(利害)'는 '이익과 손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이므로 두 단어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

[26~29] (과학)

26. [출제의도] 지문으로부터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세균 염색법으로 그람 염색법이 있음이 소개되고 있을 뿐, 이 염색법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 세균을 염색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그람 염색법으로 염색했을 때 세균이 띠는 색깔을 기준으로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을 구분함이 언급되어 있다. ③ 베타 락탐 계열 항생제와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항생제가 어떻게 세균을 사멸에 이르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④ 베타 락탐 계열 항생제의 약리단은 탄소 원자 3개와 질소 원자 1개가 결합하여 고리 모양을 이루고 있음이 언급되어 있다. ⑤ 인체에 서식하는 세균들 중에는 비타민 K를 생성하거나 소화를 돕는 것들도 있음이 언급되어 있다.

27.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베타 락타메이스는 항생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균이 만들어 내는 효소이다. 이는 베타 락탐 고리를 끊어 베타 락탐 계열 항생제에 의한 항균 효과를 억제한다.

[오답풀이] ① 그람 음성균의 세포벽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 외막에는 당이나 아미노산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인 포린 단백질들이 있다. ② 그람 양성균 세포벽의 90% 정도가 펩티도글리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진술로부터 펩티도글리칸 외에 다른 성분도 포

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인체에 서식하는 세균들은 스스로 영양분을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체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여 생존하며, 이 과정에서 사람의 소화를 돕기도 한다. ④ 베타 락탐 계열 항생제는 세균의 PBP를 불활성화하여 펩티도글리칸이 합성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세균을 사멸시킨다. 하지만 세포벽이 없어서 펩티도글리칸 구조물이 없는 인간의 세포에는 아무런 해가 없다.

28. [출제의도] 지문에 언급된 특정 대상들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분자들이 능동 수송에 의해 세포막을 가로질러 통과할 때에는 세포의 에너지가 소비되기도 한다. 하지만 세포 외막에서는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에 의해 포린 단백질을 통과하므로 세포의 에너지 소비가 없다.

[오답풀이] ① 펩티도글리칸을 주성분으로 하는 세포벽은 베타 락탐 계열 항생제의 약리단에 의해 그 구조가 손상되지만, 세포막은 이로부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 ② 세포막뿐 아니라 세포벽 역시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구조물이며, 다만 그 형태가 다를 뿐이다. ④ 그람 음성균에서 농도 차이에 의해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단백질 통로를 지니고 있는 것은 세포벽이 아니라 인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세포 외막이다. ⑤ 아미노글리코사이드는 리보솜과 결합하여 세균의 단백질 합성 기능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세포 외막이나 세포벽과 결합하지는 않는다.

29.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의 실험 상황로부터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에 동시에 감염된 환자에게 어떤 계열인지 확인되지 않은 항생제를 투여하는 가상 실험이 소개되고 있다. 어떤 계열의 항생제인지에 따라 반응과 효과를 나누어 추론해보면 된다. 이 항생제가 베타 락탐 계열 항생제인 경우 같이 감염된 그람 양성균이 항생제에 내성이 있다면 항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답풀이] 한 무리의 세균들에서 베타 락탐 고리가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베타 락탐 계열 항생제가 투여되었고 그람 양성균의 베타 락타메이스 효소가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성을 가진 그람 양성균이 사멸되지 않고 그람 음성균과 함께 정상적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따라서 염색 결과 보라색과 붉은색이 모두 검출될 것이다.

[오답풀이] ① 한 무리의 세균들에서 PBP가 불활성화되었으므로 베타 락탐 고리를 약리단으로 가지는 베타 락탐 계열 항생제가 투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한 무리의 세균들에서 능동 수송이 나타났으므로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항생제가 투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염색 결과 그람 음성균의 붉은색이 검출되었으므로 투여된 항생제는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항생제가 아니라 베타 락탐 계열 항생제를 알 수 있다. 이때 PBP가 활성화되고 그람 양성균의 보라색이 검출된 것은 그람 양성균이 내성을 가지기 때문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④ 어떤 무리의 세균들에서도 능동 수송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투여된 항생제는 베타 락탐 계열 항생제일 것이다. 그런데 그람 양성균이 베타 락타메이스를 생성하지 않아 베타 락탐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그람 양성균은 모두 사멸하고 그람 음성균만 검출되어 염색 결과 붉은색만 검출될 수 있다.

[30 ~ 34] (고전시가-수필) 정학유, '농가월령가' / 이익, '유복한기' (연계 지문 : 수능완성 184쪽 / 작가 및 제재 연계 : 수능특강 294쪽, 198쪽)

30.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아이들'(에게 말하는 부분은 '중략'되어 있지만)과 '우리 집 부녀들'에게 해당 절기에 해야 할 일에 대해 권고하는 화자의 말뿐 아니라, '동장'의 말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경계하고 권고하는 내용을 제시

하고 있다. (나)는 '중략' 이후의 문단들에서 '조정의 시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고 권고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각 문단 말미에 나오는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는 표현에서도 타인에게 경계하고 권고하려는 글쓴이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참고로 글쓴이인 이익은 뛰어난 실학자였지만, 일찍이 과거 응시를 포기하고 평생 재야에서 학문을 닦고 현실을 궁구하는 데 열중했다. 그는 재야의 학자로서 나랏일을 맡은 관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 담은 것이다.).

3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 2>에서 화자는 청자인 농민들 자신의 이익을 제쳐 두더라도('네 몸 이해 두고라도') 농업을 중시하는 임금의 뜻을 어기겠느냐('성의를 어길쏘냐')고 물으면서 농사일에 힘쓰라고 한다. 이는 농사일에 힘쓰는 것이 농민들 자신에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임금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며, 스스로에게 미치는 손익의 계산보다 임금의 뜻을 따름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뿐, 농사가 농민들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가)에서는 '동장'의 입을 빌려, <보기 2>에서는 사대부 작가의 직접적인 목소리로 임금의 은덕을 강조하고 있다. ④ 「농가월령가」에는 농민의 고통에 대한 작가의 이해를 내비치는 시구가 종종 나온다(다행히 풍년이 들어 춤고 주름을 면하게 되었다든가, 흉년이 들어도 극진히 노력하면 굶어 죽는 것은 면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러나 이 작품에서 작가는 당대 농민에게 큰 고통을 겪게 했던 국가의 조세 및 부역 제도에 대한 비판이나 건의는 전혀 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장'의 입을 빌려 '환자 신역'이 과하지 않으니 때를 넘기지 않고 납부하는 것이 임금에 대한 도리라고 설득하는데, <보기 1>에 따르면 이는 당대의 조세 및 부역 제도를 옹호하는 사대부 작가의 관점을 '동장'이라는 인물의 입을 빌려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보기 2>에서 화자는 농사에 전념하는 것이 농민들 자신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임금의 뜻에도 부합하는 행위임에도 '무지'한 농민들이 농사에 힘쓰지 않을까 걱정하며 한탄하고 있다. <보기 1>에 따르면, 이는 작중 인물의 입을 빌려 작가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가) 부분과 달리 사대부 작가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2. [출제의도] 시구의 표현상 특징과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노소 차례 틀릴세라'에 나타난 염려와 '남녀 분별 각각 하소'에 나타난 당부를 통해, 마을 행사의 '자리' 배치에 있어서 장유유서, 남녀유별이라는 법도를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은 부모가 애써 키워 결혼까지 시켰는데 자녀가 자기 몸만 챙기고 부모 봉양을 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③㉡은 아내를 집안의 새로운 일원으로 맞아들이는 남편에게 훈계하는 내용이다. 새로 들어오는 '지어미'는 '남편의 거동'을 그대로 본받으니, 아내 앞에서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뜻이다. ④㉢은 '공순'이라는 윤리를 부각하고 있으나, '내 늙은이(=내 부모)'를 공경하면서 어찌 '남의 어른(=남의 부모)'을 공경하지 않겠느냐(=다르게 대하겠느냐)는 뜻을 담고 있다. ⑤㉣은 신분에 따른 존비(=존귀함과 비천함)가 현격히 다르니, 그것을 지키면 죄책을 보지 않을 것(=벌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죄책을 어찌 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의미의 설의적 표현이 아니다.

33.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마지막 문단의 후반부에서 글쓴이는 개로왕이 스스로에 대해 내린 평가('내가 어리석고 명철하지 못하여, 간사한 자의 말을 믿고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개로왕이 망한 것은

피는 말을 듣고 패망의 기미를 살피지 못했기 때문 이'라는 글쓴이의 평가와 다르지 않다.

[오답풀이] ① 첫 문단에서 북한산성을 새로이 짓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② 둘째 문단에서 북한산성의 위치와 형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③ 셋째 문단에서 북한산성이 있는 곳에 얽힌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④ 마지막 문단에서 개로왕의 경우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백성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34.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글쓴이가 역사를 고찰하여 얻은 교훈을 제시하는 핵심 부분이다. 글쓴이는 북한산성의 궁실을 짓거나 창고를 채우는 일(이것은 '환란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는 노력의 일환일 텐데)도 중요하지만, 백성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과업을 서두르다 보면 백성의 마음을 잃게 되어 결국 적을 막을 군졸이 없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여기서 개로왕의 고사는 백성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글쓴이는 또 한편으로 병자호란의 패배가 환란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즉, 글쓴이는 환란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는 것도, 백성의 사정을 돌보지 않는 것도 '조정의 시책'을 결정하는 이들로서는 피해야 할 일이라 말하는 것이다. (참고로, '중략' 부분에서 글쓴이는 북한산성의 형세에 약점이 없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쓴이는 이 성이 '백여 년 동안 백제의 터전'이 되어 고구려 군대를 쫓기도 했으니, 성에 '흙결'이 있다고 해도 승패는 성을 지키는 자가 대처를 잘하고 못함에 달려 있을 뿐이라 말한다. '천연의 험난한 지형'이 '두려워할 만한 것'이라는 말은, 지형의 이점만 믿으면 대처에 실패하기 쉽다는 교훈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오히려 서두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② '백성의 사정을 돌보지 않고 뜻을 빨리 이루려고만 하는 것은 환란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는 태도에 해당할 것인데, 글쓴이는 '병자년'의 패배가 그러한 조급증이 아니라 대비를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③ 이 부분에서 글쓴이가 걱정하는 것은 조급하게 굴다가 백성의 마음을 잃는 일이다. 지금 성을 지킬 군졸이 없으니 당장 군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35 ~ 37] (현대시) 정지용, '바다 2' / 신경림,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작가 연계 : 수능특강 9쪽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01쪽)

35.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저절로 나서', '자라면서', '자라서는', '늙으면' 등으로 이어지는 맥락을 보면 시상의 전체적인 흐름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느티나무'의 변화를 담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형성하고 이를 나누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가)의 제재는 '바다'다. 이 시는 '바다'의 속성을 분석한 것이 아니고, 작품에 미래를 전망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36. [출제의도] 표현의 특징과 결부하여 시행의 의미와 효과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바로 앞의 '밀고 당기고 간지럼질도 시키고'나 바로 뒤의 '시든 잎 생기면 서로 떼어 주고'와 결부하여 보면, '시새우고 토라지고 다투'는 모습은 나무들이 서로 근접해서 잎과 가지를 부대끼며 사는 모습을 의인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은 가까이 있는 나무들 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지 멀리 떨어진 나무들의 간격을 나타낸 표현이 아니다. 또한 시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주어진 시구는 나무들 간의 유대가 강화되는 과정의 일부분임을 알 수 있으므로, 갈등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는 진술도 적절치 않다.

[오답풀이] ② 파도에 깨인 갯바위의 모습을 연상해 보면, '흰 발톱'은 바위를 활쥔 세찬 파도의 흰 포말을 형상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시의 앞선 맥락을 보면, '오므라들고'와 '피고'는 아침이면 활짝 벌어졌다가 저녁이면 오므라드는 연꽃잎의 움직임에 빗대어 밀려 나가고 밀려오는 파도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며, 이러한 이미지를 확장하여 '지구'를 마치 연꽃처럼 표현함으로써 생명감을 부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긴 혀'는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뻗어나간 가지와 그것에 달린 잎사귀들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화자는 한 나무의 가지와 잎이 다른 나무를 스치는 모습을 '상처'를 '활아' 준다고 표현함으로써 서로를 보살핀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나무들이 긴 세월 동안 서로 관계를 맺으며 쌓아 온 사연들을 긍정적인 시선에서 표현한 것으로, <보기>의 설명과 결부하면 바람의 힘을 견디며 나무들이 형성해 온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바람을 시련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떼어 온 고을에 뿌리는' '늙은 느티나무들'은 시련을 통해 지혜를 형성하고 그것을 세상에 나누는 민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시련을 맞아 소중한 가치를 잃어 가는 존재라고 할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꼬리'는 '푸른 도마뱀 떼'에 빗대어진 바닷물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기>의 설명을 적용하여 그것을 잡으려는 행위의 주체를 화자로 본다면, 여기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미적으로 재현하고자 하는 시인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잡히지 않았다'는 진술은 시적 표현의 어려움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시인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② '가까스루 물이다 붙이고'는 '도마뱀'에 빗대어진 '바다'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죽을 둘러 손질'했다는 것을 화자의 행위로 본다면, 이는 <보기>의 설명에 따라서 바다의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을 미적으로 다듬으려는 시인의 노력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해도'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화자의 행위는 <보기>를 적용하면 자연을 미적으로 재현하려는 시인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결과물을 '회동그라니 받쳐 들었다'라는 진술에는 그러한 노력을 소중하게 여기는 시인의 자세가 드러난다. ④ '끌어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에 시인이 인간적 의미를 부여한 표현이다. <보기>의 설명에 따라 '나무'를 민중이라고 해석한다면, 주어진 시구는 시련 속에서 서로를 보듬으며 유대감을 강화해 가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8 ~ 42] (사회) 연계 지문 : 수능완성 197쪽

38.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루만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어서 관찰할 수 있는 소통이나, 소통으로 구성된 체계만을 사회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오답풀이] ① 루만은 인간이 인권을 지닌다는 경험적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보았다. ② 루만에 따르면 기능적 분화 자체는 소통에의 참여 혹은 배제와 무관하다. 기능적 분화에 기초하고 인권을 제도로 가진 근대 사회에서 원리상으로 소통에의 보편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원리상으로 보편적 참여를 보장하므로, '거대한 배제'를 낳는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④ 루만은 인간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막연한 당위를 사회 분석의 근간으로 삼지 않는다. ⑤ 인권이 천부적인 것이라 보는 입장뿐 아니라 실정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 보는 입장도 인권이 개인에 귀속된다고 보았다.

39.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대상의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루만에 따르면 체계는 소통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그것이 전근대 사회에서건 근대 사회에서건 소통이 어떤 체계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전근대 사회에서는 신분의 속박에 묶여 신분이나 지위상으로 자신이 소속된 체계에서만 소통에 참여할 수 있었을 뿐이다.

[오답풀이] ① 소통은 실제로 일어나는, 관찰되는 것이므로 사회 분석의 주된 대상이다. ② 예술 작품을 공개, 감상, 비평하는 것은 예술적 소통에 해당한다. ③ 사회 체계는 소통으로 구성된 것이다. ④ 근대 사회에서 다양한 기능 체계들에서의 소통을 보편적이면서도 원활하게 하는 제도가 곧 인권이다.

40. [출제의도] 지문에 언급된 요청이 제기된 이유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루만에 따르면 사람들이 체계들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가 요청되는 이유는, 전근대 사회에서 신분이 제공하는 안정과 보호를 사람들이 상실했기 때문이다. 즉 개인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모든 체계의 소통에 보편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인권이다.

[오답풀이] ② 개인들이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일부 체계의 소통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근대 이후가 아니라 전근대 사회에서였다. ③ 근대 사회에서는 인권의 제도화를 통해 개인들이 형식적으로나마 모든 체계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대의 국가가 이를 막아 온 것이 아니다. ④ 기능적 분화는 계층 체계가 사라진 근대 사회의 특징이다. 기능적 분화가 지배적인 상태로 바뀌어야 하는 과제가 요청되었기 때문에 모든 체계들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가 필요한 상태인 것이 아니다. ⑤ 근대 사회에서 상실된 개인의 지위는 기능 체계에서 누렸던 것이 아니라 계층 체계에서 누렸던 것이다. 개인들의 지위가 상실된 것이 기능적 분화가 더 지배적이게 된 이유인 것도 아니다.

41.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초국적 제약 기업 A가 개발한 치료 약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의료 체계, 국제적 경쟁이라는 구조적 요인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루만의 분석 방법에 따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풀이] 불치병 환자들이 신약을 구입하는 것은 경제 체계 혹은 의료 체계에서의 일종의 소통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에 대한 참여 기회는 주어져 있다. 다만 경쟁 논리의 압력으로 인해 약값이 높게 책정되어 불치병 환자들의 상당수는 이를 실질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 '2차적 배제'에 내몰린 상황이라 분석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루만은 인간과 같은 개별 주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래서 인권 문제는 개별 주체들의 잘못된 행위에 기인하는 것이라 보지도 않는다. 따라서 가격을 책정한 A의 행위가 인권 문제의 원인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문제의 원인은 실질적으로 소통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 경쟁 논리가 압력을 가하는 상태 등 구조적 상태에 있다. ② 불치병 환자들이 약을 구입하지 못해 겪는 인권 배제 문제는 국가 차원의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인권은 근대의 산물이다. 따라서 전근대 사회에서부터 인권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③ 불치병 환자들이 겪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해 당사자인 불치병 환자들이 의료 체계의 소통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즉 가격 책정 등에 하나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 체계에 경쟁 논리가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도 인권 침해의 또 다른 원인이므로 그러한 논리에 따라 소통하는 제도를 마련

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루만에 따르면 인간은 분석 대상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불치병 환자들에 대한 직접적 분석 과정을 거쳐야 상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2.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상 의미와 가장 가깝게 쓰인 단어를 찾아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의 '살아서(살다)'는 문맥을 고려할 때 '어느 곳에 거주하거나 거처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서울에 사는 동생을 만나러 가는 길에 올랐다.'에서 쓰인 '살다'와 의미가 유사하다.

[43 ~ 45] (현대소설)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뱀'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73쪽)

43.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중략' 이전 부분에서 '나'의 발화는 '나미'를 향한 것이지만, 인용 부호로 묶여 있지 않다. 이는 '나'의 발화 속 상황에 현장감을 더해 주는 한편, '나'의 발화가 등장인물인 '나미'가 아닌 독자를 향해 직접 쏟아내는 말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오답풀이] ③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은 자신의 상황이나 'L 교수'에 대한 감각적 묘사가 드러나 있지만, 감각적 묘사를 통해 공간적 배경(베트남, 강의실)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지는 않다.

44.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우리가 전속력으로 달려 목적지를 8킬로 남겼을 땐 해가 중천에 와 있었어.'에서 '나'가 특정한 임무를 부여받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중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때 내 맘속엔 자신의 생명 이외에도 물을 기다리는 수천의 생명들에 대한 비장한 의지가 단단한 바위처럼 뭉쳐 있었어.'에서 그 임무가 물을 수송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난데없는 포화가 지축을 울리는 듯한 굉음과 더불어 우리의 진로 앞쪽에서 불꽃을 터뜨렸어'에서 '나'가 공격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③ '나미'는 '훈장은 그래서 타게 된 거로 구나라고 한 뒤 '그럼 자긴 베트남을 한 사람도 못 죽여 봤어?'라고 묻는다. 이로부터 '나미'가, '나'가 적군을 격퇴하여 훈장을 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L 교수'는 학생들이 적절한 답변을 하리라 기대하고 마차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다. '제군들, 이제 마음이 좀 동요되었나?'에서, 그의 질문의 의도가 학생들의 경직된 관념을 뒤흔들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수업을 듣던 당시의 '나'는 'L 교수'로부터 '있을 수 없는 인상'을 받았으며,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담긴 '홍상'을 만들었다. '나'가 'L 교수'에게 반감을 느끼게 된 것은, 전쟁 체험의 강렬함에 압도되어 'L 교수'가 강조한 사유며 관념을 모두 헛된 것으로 여기게 된 뒤의 일이다.

[오답풀이] ① ㉠의 '플래시를 들이대는 듯'하다는 표현은 '나'가 '나미'의 목소리에서 느낀 갑작스러움을 보여 준다. '나'는 '나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도, 마치 자신이 기억 속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는데, '나미'의 목소리는 그런 '나'를 갑작스레 현실로 돌려놓은 것이다. 이처럼 회상 속 전쟁의 순간에서 생생한 실감을 느끼고, 회상에서 빠져나와 갑작스레 돌아온 현실에서 오히려 얼떨떨함을 느끼는 '나'의 모습은, 죽음의 긴장이 지배하는 전쟁 체험에 압도당한 까닭에,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도 이를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가 느끼는 낯설음을 짐작하게 한다. ④ '나'는 '홍상'에 대한 자신의 반감이 그 홍상에 쓰인 '과장된 리얼리즘적 수법에서 기인한 것인지' 생각한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로부터 'L 교수'의 형상을 재현한 수단인 '홍상'을 거저된 것으로 여기게 된 '나'의 내면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